보도자료 2024. 1. 25. 2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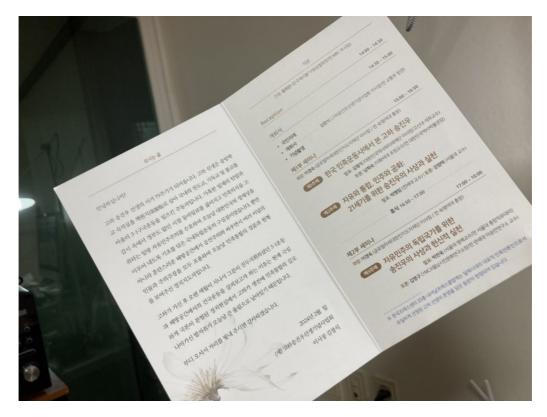
https://blog.naver.com/fromage/223333800095



▲ '고하 송진우선생 70주기 추모식' 에서, 김창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고하 선생 전기 만화 "항일독립과 민주건국의 등불, 고하 송진 우"를 영정에 봉정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라도 시대적 상황이나 분위기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가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떳떳하게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보통 간담으로는 더더욱 어려운 일어었을 것이다. 이 서슬퍼런 시대의 법정에서 "독립운동은 조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연한 말을 아주 서스럼없이 한 사람이 있다. 1919년 3.1운동 직후 피검됐을 때 검사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고하 송진우의 이야기다..



이번 행사는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전 MBC 부사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김창석 고하기념사업회 이사장 (전 교통부 장관)의 개회사, 기념촬영, 세미나(1부, 2부), 의 순으로 진행되며,

3시 부터 열리는 제1부 세미나는 이경숙 글로벌차세대 한인지도자재단 이사장(전 숙명여대 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의 발표, 남희숙 이화여대 초빙교수의 토론), 자유와 통합, 민주와 공화:21세기를 위한 송진우의 사상과 실천(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발표,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토론)이 주된 내용이다.

5시부터는 세번째 주제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를 위한 송진우의 사상과 헌신적 실천(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발표, 김명구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교수의 토론)〉에 대해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세미나의 막을 내린다.

참고로, 행사가 열리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날프레스클럽에는 일제시대의 대표적 민족언론인으로서 유일하게 선정된 고하 선생의 존영을 담은 동판이 헌정되어 있다.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고하 송진우 선생의 서거 79주기가 되어옵니다. 고하 선생은 중앙학교 숙직실을 책원지(策源地)로 삼아 국내의 천도교, 기독교 및 불교를 아울러 3.1구국운동을 일으킨 주동자입니다. 가혹한 일제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정부도 없던 시절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일방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루어 내도록 기초를 닦은 국내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해방공간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여러 이념의 인물과 주의주장을 모두 포용하여 오늘날 민족 통합의 경듄과 원형을 보여주신 정치지도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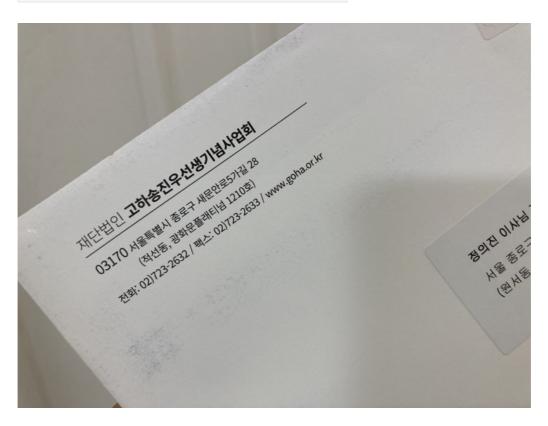
고하가 가신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이 진두지휘하셨던 3.1운동과 해방공간에서의 건국운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극심하게 국론이 분열된 정치현실에서 고하가 생전에 민족통합의 길로 나아가신 발자취가 오늘날 큰 울림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

https://blog.naver.com/fromage/220354662695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5주년 및 서거 70주기 추모식 일제강점기, 국가적 계속성은 잠시 끊어졌으나 민족적 계속성은 그대로 유··· blog.naver.com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고하송진우특별학술회의, #고하송진우민족운동